

서서히 기지개 켜는 추리소설 시장

1990년 후반부터 추리소설 출판 저조해...

변화된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추리소설 창작 활발해야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독자들은 추리소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20~30년 전 외국추리소설이 대부분인데다 이렇다 할 국내작가의 창작물도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얻는 추리소설 시리즈가 있어 아직 추리소설 시장에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만, 추리소설이 다시 독자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국내창작물의 활발한 출간이 필수적이다.



대형서점의 추리소설 서가에는 공포소설, SF소설 등이 추리소설과 뒤섞여 있어 추리소설의 인기 하락을 가능하게 한다.

추리소설이 가장 번성했던 때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였다. 이 시기에는 많은 추리문학고전들이 번역돼 시리즈로 독자에게 선보였다. 해문출판사의 <팬더추리결작>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을 비롯해 신원문화사의 <신원 미스터리 클럽>, 명지사의 <명지 추리문학선> <세계 미스터리 특선>, 계림닷컴의 <추리여행>, 자유문학사의 <애거서 크리스티 추리문학>, 일신서적공사의 <일신 미스터리 컬렉션>, 시공사의 <시그마박스> 등이 이 시기에 나온 추리소설 시리즈다. 이 시기에는 또 1970년대부터 인기를 누리던 김성중의 작품들도 속속 묶여져 나왔다. 남도의 <김성중문학전집>, 추리문학사의 <김성중추리소설>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 추리소설 고전도 인기 폭발해

그러나 요즘 대형서점에 가보면 추리소설 서가에 순수한 추리소설은 몇 종 되지 않는다. 추리소설은 스릴러 소설, 공포소설, 범죄소설, SF소설들과 함께 분류돼 뒤섞여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추리소설의 판권부분을 살펴봐도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에 인쇄날짜가 멈춰 있기 일쑤다. 많은 시리즈들이 단종된 상태거나 절판된 상태고 독자들의 주문이 있을 때만 소량으로 인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사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기획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시그마박스>로 엘리리 퀸 작품들을 의욕적으로 펴내던 시공사도 이미 12시그마박스> 시리즈를 절판한 상태다. 1990년대 초반 추리소설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시드니 쉐던, 로빈 쿡, 스티븐 킹 등이 쓴 이른바 스릴러 소설들도 추리소설 서가를 차지하고 있을 뿐 그때에 비해 인기가 저조한 편이다. 대신 판타지 소설의 서가에는 젊은 독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해문출판사는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리문학 번역물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해문출판사는 추리문학에 힘입어 성장해온 출판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추리문학에 주력해왔다. 1986년 중동을 배경으로 한 첩모물인 <피닉스>를 시작으로 50권으로 이뤄진 <팬더추리결작 시리즈>, 모두 81권으로 이뤄진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 46권까지 출판한 <미스터리 시리즈> 등 주로 추리소설 고전들을 꾸준히 번역·출판해왔다. 1980년대만 해도 해문출판사의 추리소설은 꾸준한 인기를 얻었고 시리즈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드니 쉐던, 로빈 쿡, 스티븐 킹 같은 작가들에게 애거서 크리스티의 자리를 내줘야 했다. 본래 2백권을 기획한 <미스터리> 시리즈는 번역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46권으로 접을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독자들이 추리소설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추리소설을 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1980년대만 해도 추리소설 독자층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두터웠지만 지금은 갈수록 그 독자층이 줄어들어 일부 마니아들 외에는 추리소설을 찾는 독자가 없다.”

해문출판사 맹종호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의 서점에 가보면 추리소설이 문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쉬워한다. 해문출판사는 그 동안 출판사 규모를 줄이고 유진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오랫동안 쌓아온 추리소설 출판의 역량을 이용해 <명탐정> 시리즈 등 어린이책을 펴내고 있다. 최근에는 추리문학 전문출판사로써 새롭게 도전장을 던지며 <세계추리결작선>을 펴내기 시작했다.

국내 추리소설로 시선을 옮겨보면 사정은 더 딱하다.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추리소설 작가는 80여명. 그러나 대부분 이렇

다 할 작품을 펴내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김성중, 이상우의 인기를 이어갈 만한 걸출한 작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해에 한권 이상의 책을 내는 작가만 해도 5백여명 수준이라니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게다가 우리나라 추리소설 작가들은 아예 '추리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고 작품을 출간하는 예가 많다. '추리소설'이 책 판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리소설을 창작하기보다 작가들이 방송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추리소설이 저조한 이유를 태동출판사 정석화 실장은 네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번역되는 책이 부족하다는 것. 국내에 번역되는 추리소설들은 대부분 20~30년 전 작품이어서 현재 독자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출간되는 현대물들을 독자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두번째는 국내 추리소설에서 성공한 작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추리소설을 써 가장 성공한 작가인 김성중의 하드보일드 소설이 국내 추리소설의 전형처럼 여겨져왔다. 그렇게 김성중이 독주하다 보니 다른 방식의 추리소설은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세번째는 정치적 제약이 많았다는 것이다. 가령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권총을 든 탐정이 등장하는 소설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았다. 네번째는 추리소설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육성할 만한 잡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김성중이 만든 《추리문학》이 있었지만 3~4년 나오다가 발간을 멈췄다. 1990년대 무협·대중소설 잡지인 《엑스칼리버》와 《미스터리매거진》이 있었지만 이들도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새로운 독자층에 호소하는 <캐드펠> 시리즈

추리소설 출판이 저조하고 독자들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리소설 출판이 죽은 것은 아니다. 북하우스에서 펴내고 있는 <캐드펠> 시리즈는 마니아층을 겨냥해 성공한 경우다. 엘리스 피터스가 1977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이 시리즈는 중세가 배경이고 수도사인 캐드펠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다른 추리소설에 비해 긴박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중세유럽의 역사를 성실하게 고증하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캐드펠 수도사의 따뜻한 시선이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리소설이긴 하지만 인간의 갈등과 고뇌가 주류를 이루는 순문학적 요소가 강하다. 영국에서는 TV 연속극으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이 책은 국내독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인터넷서점의 독자서평란에 끊이지 않고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인터넷에 캐드펠 동호회가 생길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독자도 10대 학생부터 30~40대 주부, 직장인까지 다양하다. 올 12월로 시리즈 20권과 작가의 전기가 완간될 예정이다. 북하우스 김정순 대표는 “문혀 있는 추리소설을 발굴해 계속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동출판사에서 매년 국내 추리소설 작가들의 단편들을 묶는 《올해의 베스트 추리소설》, 일본 추리소설 단편들을 묶은 《미스터리 걸작선》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은 경우. 여름에만 각 1만부 이상 나간다고 한다.

추리소설, 위축된 문학시장의 대안 될 것

이런 추리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발맞춰 추리작가협회에서는 내년 2월 계간지 《추리문학》을 창간할 계획이다. 국내 추리소설 작가들의 발표지면을 넓히고 본격적인 추리소설 작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상시적인 강 의도 준비중이다.

이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태동출판사 정석화 실장은 추리소설 출판이 다시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들이 추리소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추리소설을 '저급한 소설'로 치부하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리소설의 특성상 플롯과 문학적 문장을 다 살리기는 어렵다. 플롯 중심의 전개다 보니 그런 전개에 문학적 문장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실장은 추리소설에 순문학적 요소가 많다고 강조한다. 판타지가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상상력을 풀어놓는 데 비해 추리소설은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가 바탕이라는 것. 추리소설을 가장 많이 찾는 독자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는 것도 이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 추리소설 독자들은 고적적인 추리소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한 예로, 추리작가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독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밀실살인'이었다는 것. 그러나 '밀실살인'의 기법만 해도 세계적으로 5백여가지나 된다. '밀실살인'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소설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외국독자들이 스토리의 반전에 더 관심을 쏟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정석화 실장은 갈수록 위축되는 문학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추리소설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더 이상 상업적으로 포장되지 않는 순문학은 살아남기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의 출판 흐름도 이미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현대적인 추리소설을 번역해 출판하고 국내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추리소설은 대중성과 문학성을 아우르는 중간소설로서 문학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근기자